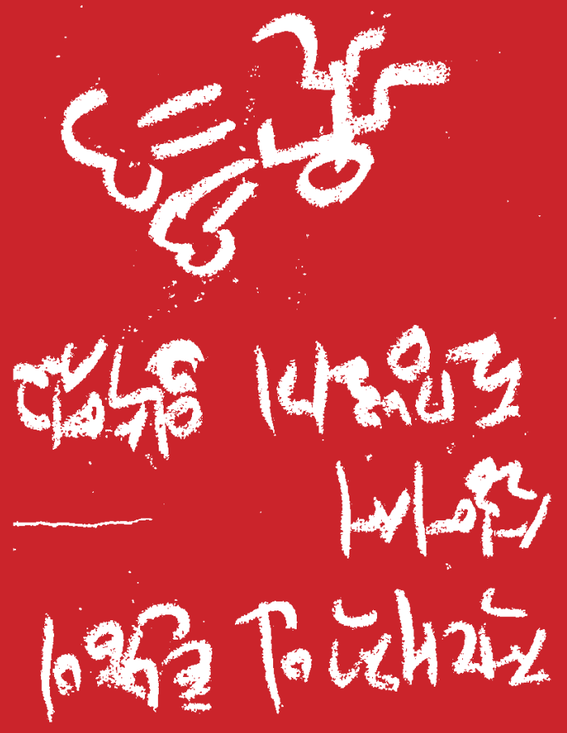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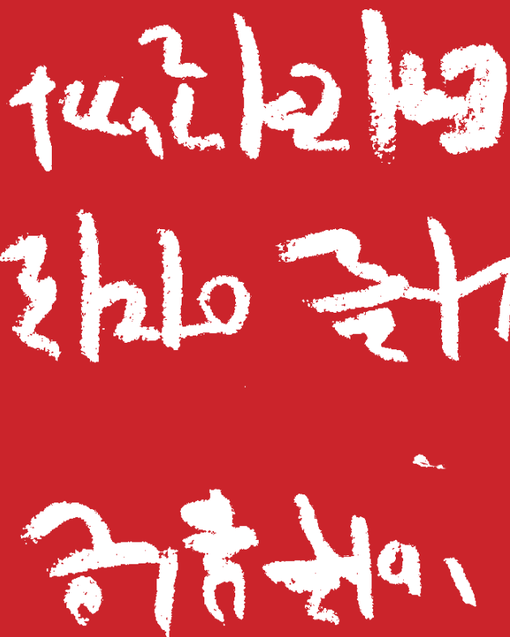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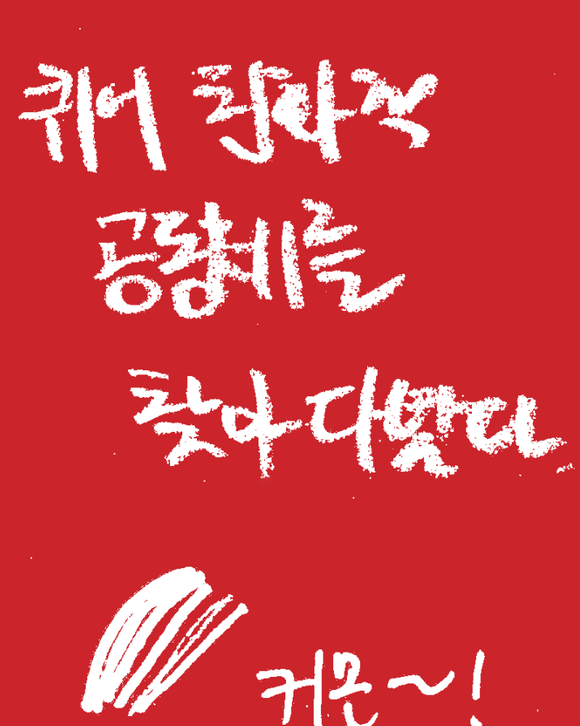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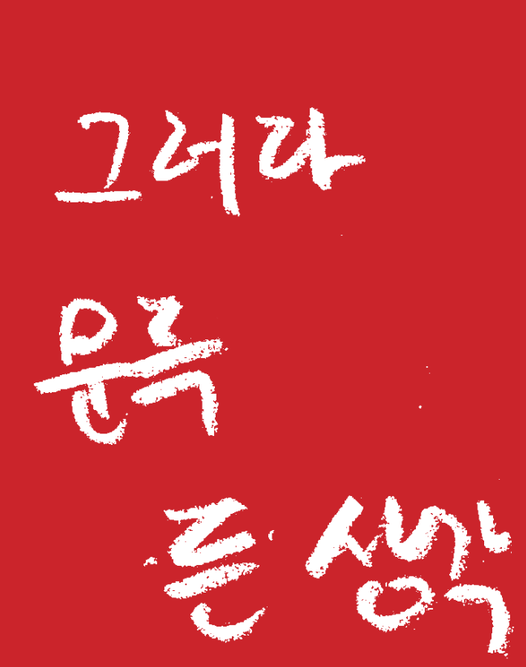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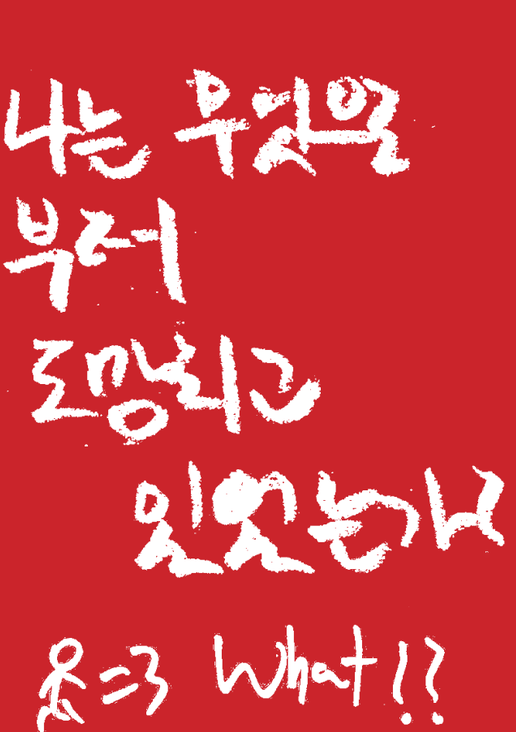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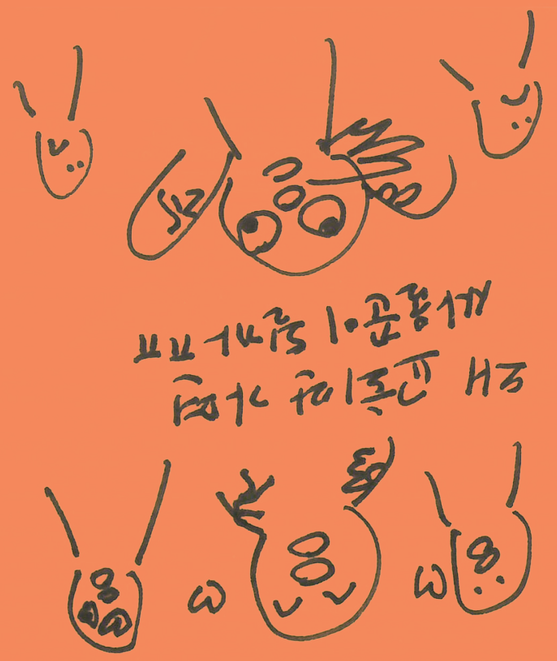

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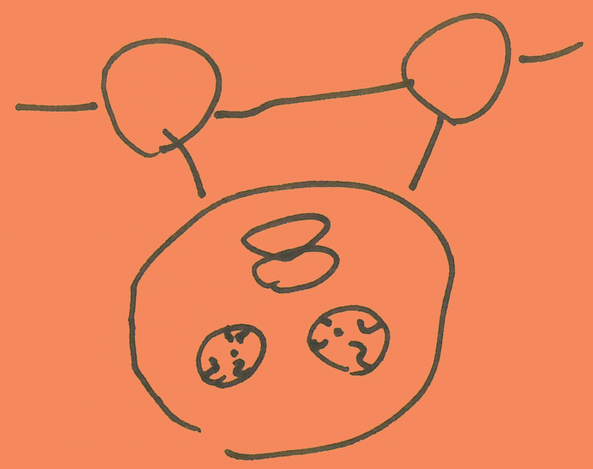


다른 분이 가면 서러워했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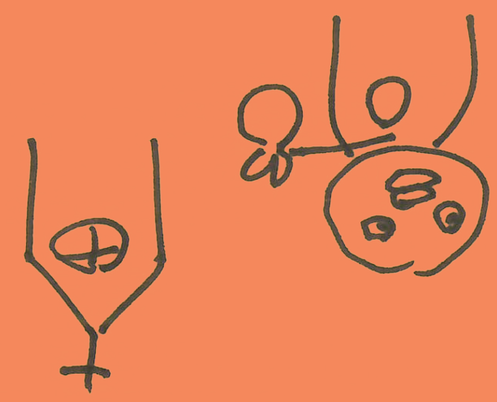
오직 곧장 가면
새로운 일이 일어나

이럴 때부터 또
왔던 길 뒤적거림
사람들, 나는 안다고
생각해 내 버릇을
더 일찍이 알았을!

(역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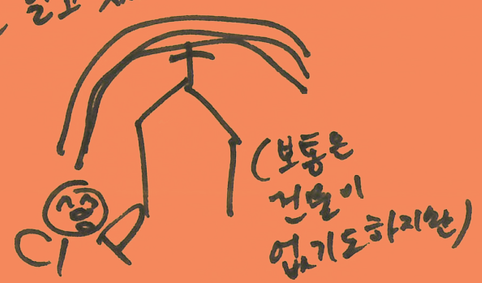


대부분 멈춰있을 뿐
머무른 적…
멀리서는 기억조차
같이 안 오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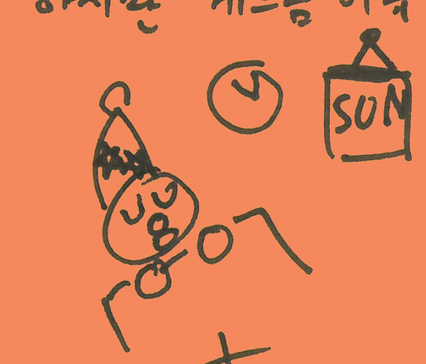
다른 점도 많고 고통은
아니는 데였음.

그래도 어딘가
내가 나로 존재하고
내가 취해간 것보다 다른걸을
더 봄낼 수 있는 교회가 있겠지?
사실 알고 있다 그런 교회들을…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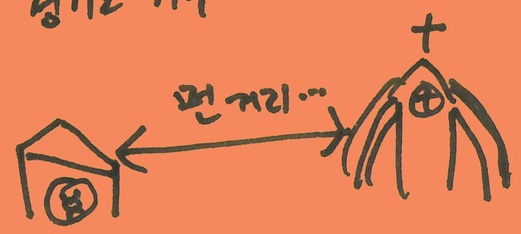
퀴퍼에서 많이 봄…
그쪽 친구들이 다빈…

하지만 게으름 이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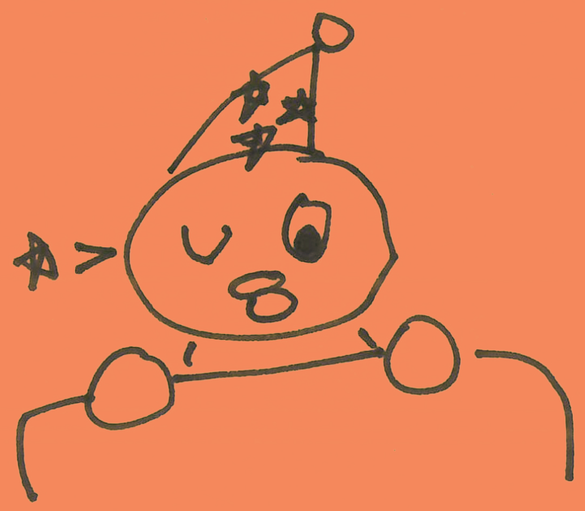
+

결기도 거꾸 이슈도



찾길 버리는 줄…

서울로 오면
찾아야지!
그전까진 일요일 아침은
잘래 쏜



교회 찾는
(마음속으로만)

핑구

나는 자기다워 살아온
시간들과 생각
사람들을 잘 보듬고
살아온.

나는 묵묵히 하는
고독을 찾아
안정과 평범
만들었어요

기독교 학교에서
영문을 모르면
친구를 찾아 걷던 때였어요

너가 잘못됐다고 하면
남들이 무
나가 그렇게 생각하는지
질문하고 싸웠어요

— 인터뷰를 했어요 —

나를 지키는 일을
포기하지 않았어요

숨 없이 밀려오는
변화들 속에서

나는 사랑하며
살아가는 사람이니까.

by 노강조아

어떻게 관리하면서 패션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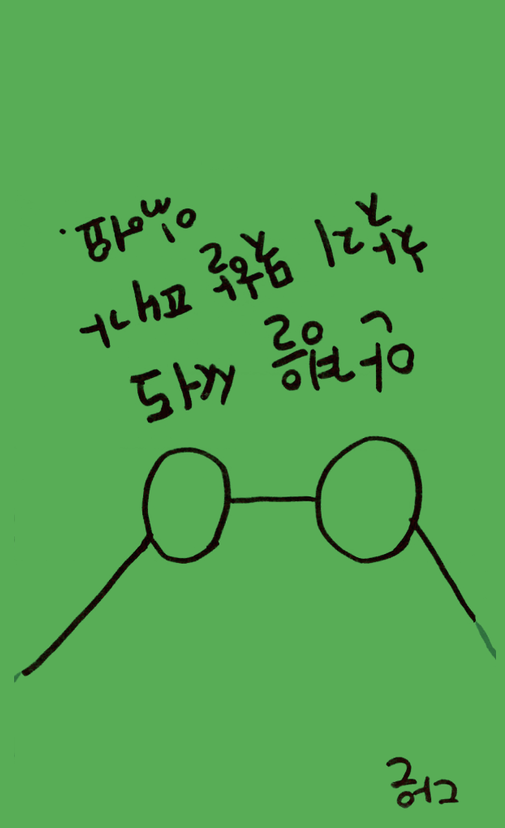
패션쇼가 있데?

나는 부나나게 도앙을 대서요

어떻게 동생애를 해?

근데 사실 도앙이 아낼리도 몰라요. 나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, 더 응덕일 뿐이거든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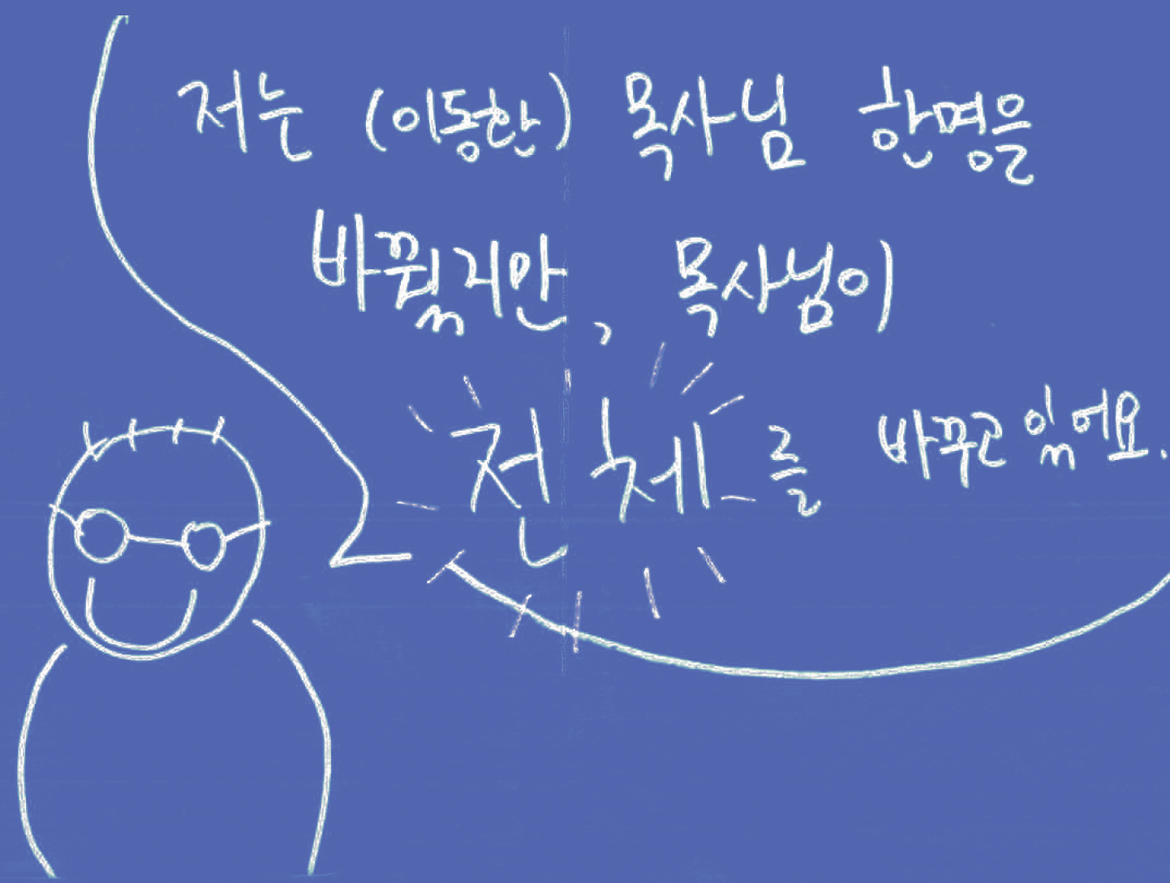
산희는 언제나 산희에게 있어!



산희야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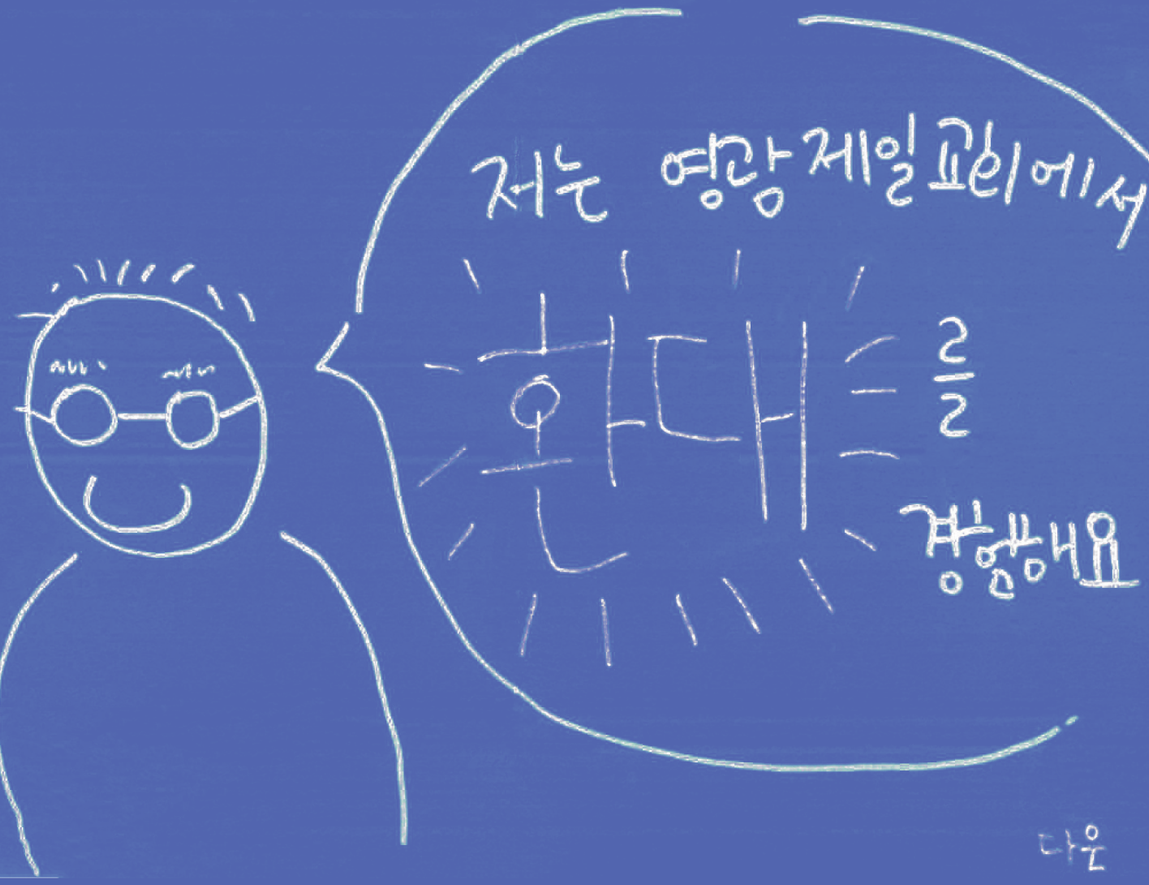
/// 내가 교회에
리바뀌어졌을 때

'유리'



Thanks to
와와
그가 사랑하는
하나님

저는 방송수와
트랜스젠더
비건 정신장애인
그리스도인
와와입니다



다온

...아님

...규칙

토마토 페이스트는 농축되어 있기 때문

프로틴 가루 양념은 생략해도 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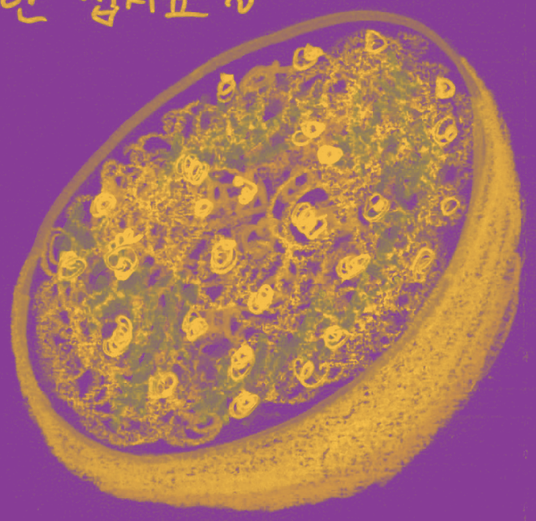
감사드릴 것이 넘치는 한 주였습니다.

이동욱

휴에이이 운영하다 알게 된 분인데,
모든 계획 따라를 참 추세요.

제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.

매콤 새콤
고소한 초무침 가득
한 접시요 ~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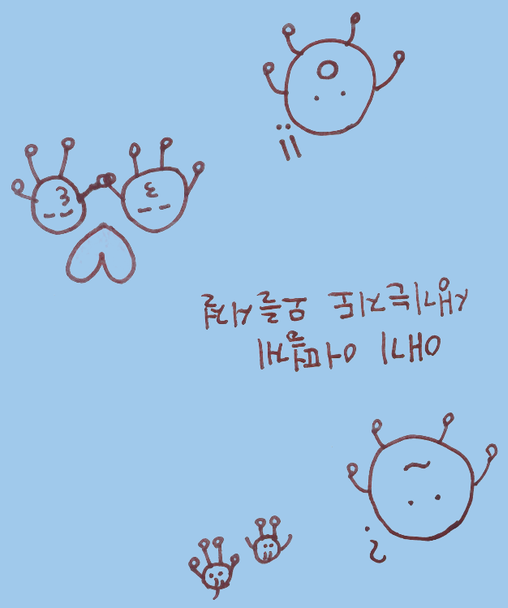
목사님 원천세 신고
제대로 하셔야죠
ㅠ_ㅠ

큐앤에는 이렇게 다양한
음식 선물을 충당하였습니다.

한국 교회를 향한 귀여운 질문
큐앤에이는 한국 교회 안에서
귀여운 자리를 마련하기
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.
많은 관심 부탁~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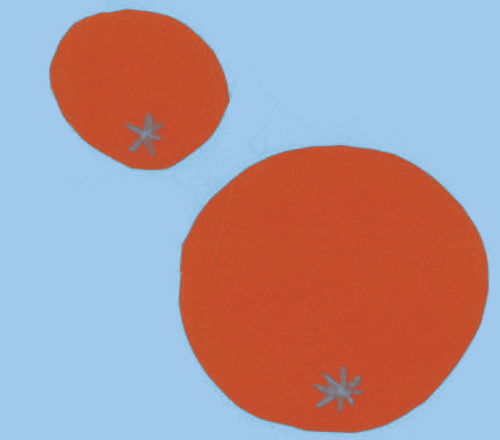
100-035-182490
(산합, 큐앤에이)

밥심으로
한국교회를 키어하게!



모두가
착하진 않더라

니가 뭔데
내 사랑을 평가해
쌍



내 좆대로 사랑할거야

사랑을 모르는
당신들이 불쌍해

i 속의 이방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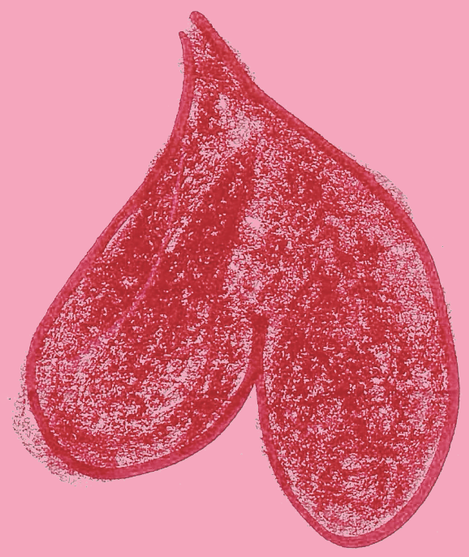
늘

나는 누구인가

나에게 물어보지만

대답을 늘 찾을 수 없다.

ii 나는 누구인가



나는 누구?

때로는
윤리없는
리듬도
걷어야
했지만

때로는 모든것이
혼란스럽기도
하지만

그래도..
이 모든 것들은
나의 것이고
나 자신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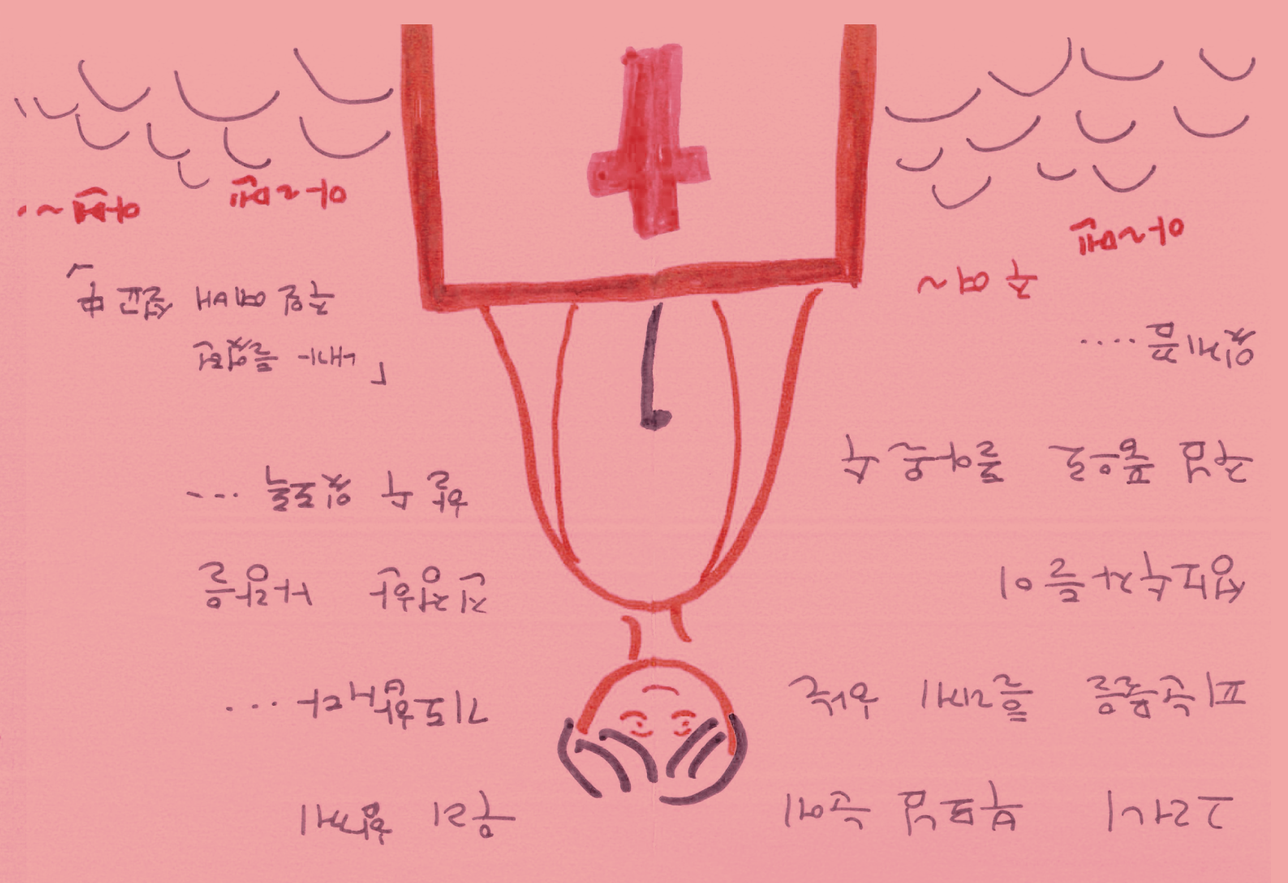
그냥 놀이기구는
차라리 타겠다~!

쉬어 갑시다~!

오늘은 쉬어 말고
다른 거 하고 싶어!

싸움을
하지 맙시다

곧 싸우게 될 거…


그러니 부모님 손에
피눈물을 흘리게 하는
원망스러운 존재가
되지 맙시다
진정한 나를
찾을 수 있도록…
「내가 틀렸던
적도 여러 번」
아~멘!
아~멘!
아멘~!
주의 복음을 전하는
일꾼들…
주여~

우리
서로
사랑합시다
…
사랑
해야 합니다

오래
온유
서로의
참고…
하며…
모난 부분을
…
안아주어야
합니다

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을
만날 수도 있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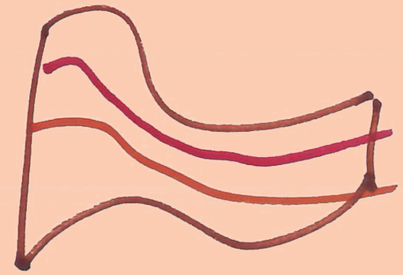
고등학교 때 만난
게이 친구

알바하다 알게된
게이 친구

지금은 세상에 없지만,
한때 연인관계였던
바이 친구

직장 동료로 만난
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 분들

집회 현장 사진
찍는 걸 좋아하는데,
키퍼는 어렵기도
하고 뽑고 짜내고
싶지 않아 취실에서
모는 것 같아 그냥
걸기만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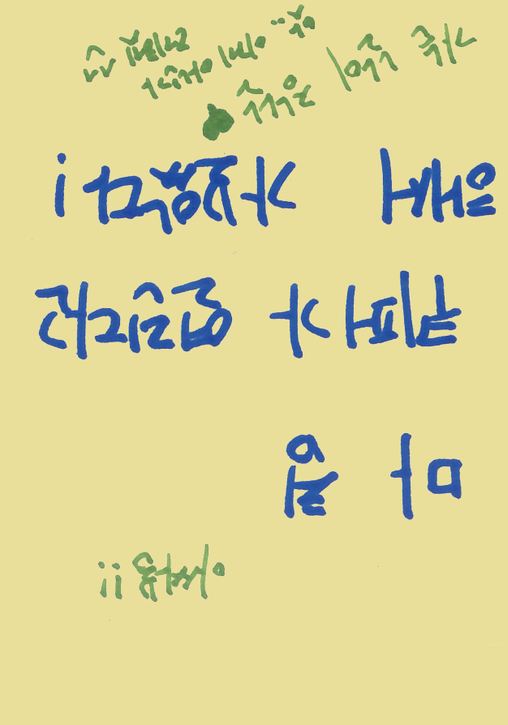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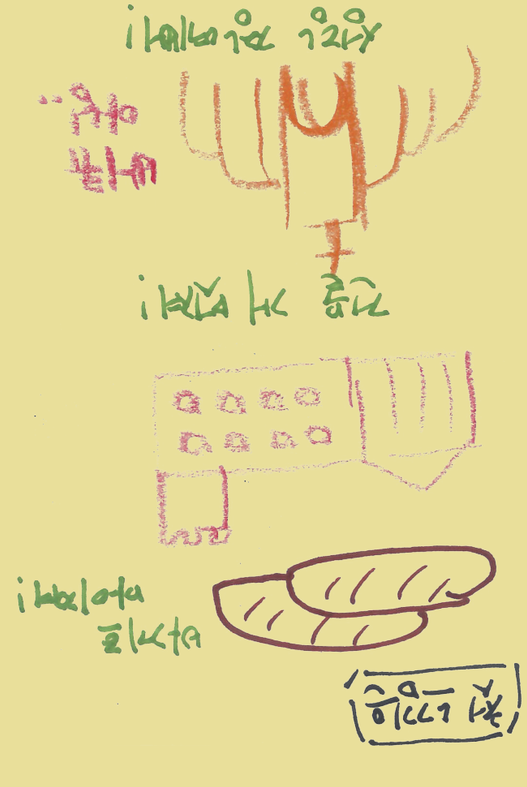
너무 너무 사랑스러웠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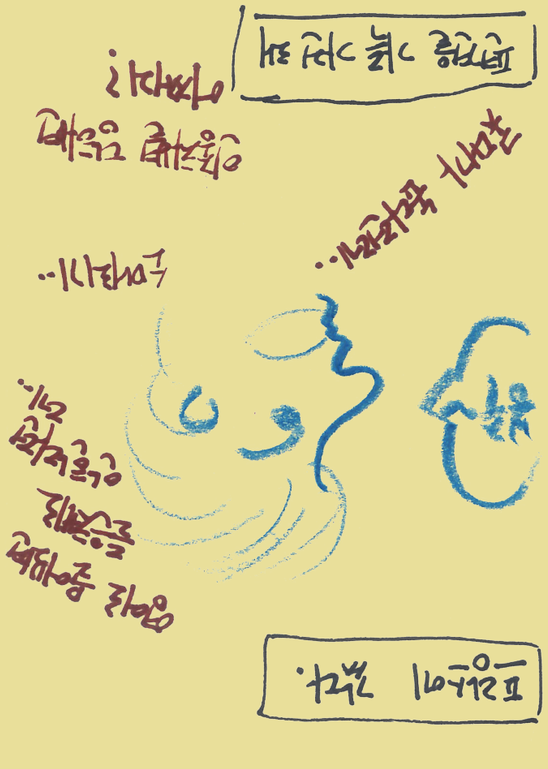
너는 너
나는 나
남의 시선 따윈
신경 쓰지
않아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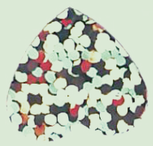
워 오두는
다
소중하니까!
야 너두~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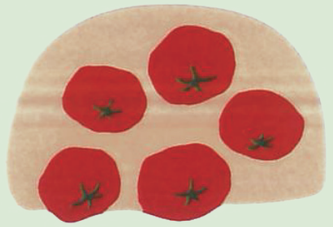
프랑스에서
퀴퍼











색깔로
표현할 수 있어요

어쨌든
이름은 써야해요

"섬세하게"

섬세함이
필요해요

참치샐러드

부먕듀샤브샤브

관리는배로

저희는

아보카도

여성의정맥

등심토치지

엄청싸이용

기억이 나지 않는 어느 날
문득 시간들이 멈춰버린 것 같은
착각을 한 적은 없나요?

나와 같은 지구별에
그대의 초개는
살아 있나요?

보고 싶은 얼굴이
생각나면
전화하고
만나고 싶어도
보고 싶다고 말하기 힘든 날

사랑하고
기도하고
헤어지고
운동하는 하루하루

그 모든 순간들이
세세하게
행복하기를

내가 그렇듯이

반짝반짝

by 소랑초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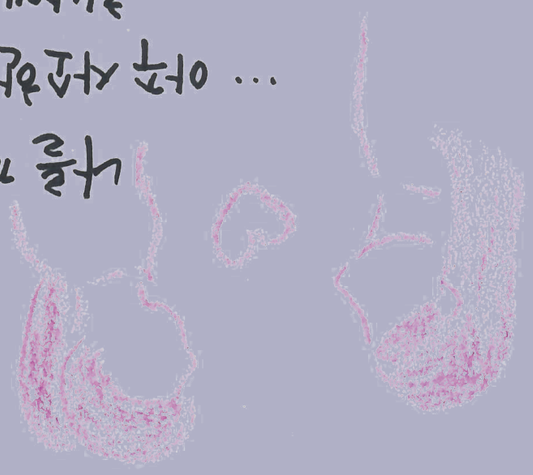
톳젱!~

기도한다는 건

…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
있는 그대로의 나를 마주하려 노력하는 것

… 나의 연약함을 피하지 않고
하나님께 나아가는 것

그 극복과정에 동행하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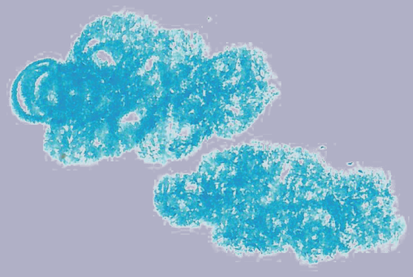


믿는다는 건

…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곁을
떠나지 않는것

… 내가 아무 어떻을 때 곁에 있어주시는
또이주는 어떤 것

그 극복과정



함께한다는 건

… 가장 낮은 자리에서
서로의 손을 맞잡는 것

그

사랑한다는 건

… 있는 모습 그대로를
품어주는 조건없는 마음! ♡

건이라는 건

… 나를 숨기지 않기로 한 이름 …!